

[일반논문]

기형도 시에 나타난 길의 공간의식

이세경

(단국대학교 강사)

차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절망적 회귀의 공간 |
| 2. 비극적 자아인식과 단절의 공간 | 5. 맺음말 |
| 3. 상실과 결핍의 공간 | |

1. 들어가는 말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죽음의 이미지들로 가득한 기형도의 시는 어둡고 우울하다. 급작스런 죽음 이후 평단의 많은 주목을 받은 그의 시의 특징은 비극적인 세계관, 도저한 부정성, 죽음의식으로 요약된다.¹⁾ 그의 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에 나타나는 비극성과 죽음의식에 집중되고 있으나 『기형도 전집』 발간 이후 평론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에도 이르기까지 기형도 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두웠던 유년의 기억, 출구 없는 현실, 전망 없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했던

1) 기형도의 시에 대한 논의는 김현의 시평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임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성민엽, 「부정성의 언어, 그 사회적 의미」, 《오늘의 시》, 1989.; 정효구, 「기형도론 :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2. 2.

시인의 비극적 세계인식은 낯설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냉정하고 비정한 내면의식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형도의 내면세계가 특히 길이라는 공간의식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시적 공간은 문학과 현실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작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상과 사물을 통해 드러나므로²⁾ 기형도의 시에 있어서 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그의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길과 관련된 시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편수에 상관없이 시인의 의식세계를 나타내는 길의 의미는 상당한 중요성을 띠기 때문이다. 길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연속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주는 진행행의 공간이다. 또한 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거나 현실에서의 일탈을 시도한다거나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의 공간으로 길은 많은 작품에 존재해왔다. 그러나 기형도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길은 출발점도 도착점도 불투명한 정지의 공간이며 절망과 부정적 자아의 내면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회환과 탄식과 절망으로 점철된 기형도의 내면은 고독과 우울한 정체성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 상실감에 젖어 있다. 이러한 기형도의 비극적 세계관의 기저에는 유년의 가난과 상처와 고통이 존재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를 통하여 “인간존재의 절대적 세계를, 혹은 그리움이 나 추억, 현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의 저편을 향한 존재의 모습을 시적 정서로 끌어안으려”³⁾ 한다고 했을 때 기형도에게 있어 유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현실마저도 부정적 세계로 받아들이게 하는 근원적 절망과 상실의 내면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즉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길은 유년의 상처와 고통을 간직한 자아 상실 공간이자 길거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어두운 단절의 공간이다. 따라서 길이라는 공간은 자아와 세계의 화해 지향이 불가능한 닫힌 공간이자 개별화되고 고립된 곳이다.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인간은 가장 근원적인 세계로의 회귀를 꿈꾸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형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은 시적자아를 더욱 절망

2)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p.17.

3)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p.193.

에 빠뜨릴 뿐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비극적이라고 인식하는 시인에게는 추억도 기억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에 대한 부정적 자아의식은 돌아갈 곳조차 없는 시인의 절망적 의식세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세계를 길이라는 공간의식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기형도의 시 세계를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2. 비극적 자아인식과 단절의 공간

기형도는 첫 시집의 제목을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와 '정거장에서의 추억' 중 하나로 결정하고자 하였다.⁴⁾ 기형도의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시인 자신이 시집 제목으로 고려할 만큼 자신의 시세계를 상징하는 시로서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시작(詩作) 메모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거리의 상상력을 '사랑하였다' 그의 시편은 길을 거니는 여로에서 관찰하였고 삶의 양태와 아프게 얻어낸 인식들로 채워져 있다.⁵⁾ 즉 그의 시에는 길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그리 많이 묘사 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리나 방죽, 언덕과 같은 변형된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너의 홀렁가 버린 기쁨이여
 한때 내 육체를 사용했던 이별들이여
 찾지 말라,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이제 해가 지고 길 위의 기억은 흐려졌으니
 공중에 회고 둥그런 자국만 뚜렷하다
 물들은 소리없이 흐르다 굳고

4) 성석제, 「기형도, 삶의 공간과 추억에 대한 경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기형도 추모논집』, 솔, 1994, p.238.

5) 임태우, 「죽음을 마주보는 자의 언어-기형도론」, 『작가세계』, 1991. 9, p.395.

어디선가 굶주린 구름들은 몰려왔다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조차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나려온 이 길
구름들은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인생을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여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전문

이 시의 중심공간은 길 위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적 자아의 공간이다.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는 중얼거림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현존하는 세계와 그 세계 속에서 서성여야만 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머무는 공간이다.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들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회고 등그런 자국만’으로 남은 태양, ‘굶주린 구름’, ‘소리 없이 흐르다 곧’은 물은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며 ‘흐려진 기억’, ‘무책임한 탄식’, ‘인생을 그르치고 있던 희망’으로 가득하다. 흘러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 것들을 떠올리는 시적 자아의 내면은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즉 이 시에서 길은 어둠속에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삶과 현실의 무의미성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비극적 자아의 내면의식을 보여준다. 황폐한 내부를 숨기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 바로 이 시의 시적자아의 모습이다.

이 읊에 처음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쏟 쏟아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안개」 일부

이 시는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부정적 공간의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안개가 가득한 방죽은 시야가 차단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립의 공간이다.

안개는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존재다. 무(無)와 작품의 상징이기도 한 안개는 생/사의 경계인 그 읍의 정경으로부터 피어오른다. 그 읍에 사는 사람들은 앞선 자들이다. 지워질 때까지 삶의 의미도 모르고 '편리한 습관'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고 물화된 삶에 가려 실존인식 없이 사는 존재들이다.⁶⁾ 안개가 음습한 방죽 위로 걸어가는 자들은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낯설고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현실의 공간은 '쓸쓸한 가축들처럼' 안개의 성역에 간혀 있다가 사라져야 하는 존재들이 있는 공간이다.

방죽은 어떤 곳인가. 변화한 넓은 거리가 아니라 외지고 한가한 길이다. 지름길이거나 샛길 혹은 도시 변두리의 쓸쓸한 길이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길이 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길이라고 해서 다 어두운 이미지만을 갖는 것은 아니나 이 시에 나타나는 방죽의 의미는 단순히 호젓한 길이 아니다. 여공이 겁탈당하거나 취객이 죽어도 트럭이 쓰레기인 줄 알고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무섭고도 냉엄한 현실의 공간이다. 즉 기형도의 안개라는 작품 속에 들어나는 방죽이라는 길의 공간은 암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인식하며 안개의 성역 속에 갇힌 자아의 공간이다.

6) 최창현, 「한국 현대시 존재담구의 변모양상-김춘수, 박남수, 김종삼, 기형도, 최승호, 황지우, 유하, 함성호, 김언희 시의 탐구대상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중앙어문학회, 2003, 12, p.218.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하는 자아의 절망적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도 그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근원적 존재의 허무에 빠지게 된다.

어떠한 대상이 그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아의 내면의식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았을 때, 어두운 현실적 공간으로서의 길은 고립과 단절을 의미하는 시적공간으로 이러한 현실 속의 자아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3. 상실과 결핍의 공간

기형도의 내면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의식은 그의 유년의 기억에 기인한다. 기형도의 유년기 체험은 「겨울 판화」 연작과 「위험한 가게·1969」, 「바람의 집」, 「폭풍의 언덕」, 「달밤」, 「너무 큰 등받이 의자」, 「엄마 걱정」과 같은 작품 속에 병과 가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가족사적 비극으로 묘사되고 있다. 앓아누운 아버지, 신문을 돌리고 공장에 다니는 누이들, 생계를 위해 늘 집을 비워야 하는 어머니, 이에 따른 가난은 기형도의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로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 시절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르고 있는 시적 자아의 절망적 세계인식은 현실세계마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자아의 유년시절은 결국 시적 자아를 둘러싼 근원적 절망과 상실을 규정해 주는 현실세계의 모습이다. 즉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절망적 현실은 그의 유년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

방죽에서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가을밤의 어둠속에서 큰누이는 냉이꽃처럼가을
게 휘청거리며 걸어 왔다

(.....)

선생님, 가정 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혼자, 낮에는요. 방과 후 긴 방죽을 따라 걸어오면서 나는 몇 번이나 책가방 속의 월말 고사 상장을 생각했다. 독방에는 패랭이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다.

—「위험한 家系 · 1969」 일부

나는 형묘같은 배를 접으며 이 악물고 언덕위에 섰다

(……)

다음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폭풍의 밤마다 언덕에 오르는 일을 그만두었다. 무수한 변증의 비명을 지르는 풀잎을 사납게 배어 넘어뜨리면서 이제는 내가 떠날 차례였다

—「폭풍의 언덕」 일부

어두운 유년의 기억은 대부분이 병든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관련있다. 유년을 회상하는 시편의 제목을 보더라도 집이나 가족에 대한 기억이 일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따뜻한 휴식과 정신적 위안이기보다는 고통과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방죽과 언덕이 가까이 있는 집주위의 환경은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의 생활을 엿보이게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아버지가 낮에도 집에 있거나 아니면 부재하는 상황은 그 가정의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사랑과 기쁨이 되어야 할 상장을 가방에 넣고 긴 방죽 길을 걸어오는 하교 길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 담임선생님의 가정방문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누이를 기다리는 적막한 기다림의 길이다. 또한 언덕은 ‘형묘 같은 배를 접으며’ ‘폭풍의 밤마다’로 오르는 곳이었다. 가난과 외로움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어야 할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떠날 차례였다’는 길 떠남의 의식으로 이어진다. 즉 그의 작품에서 길 떠남의 의미는 바로 유년의 가난과 불행의식과 관련된 자아의 상처와 아픔에 연유한다. 이러한 기형도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유년의 체험은 현재에서도 자아의 존재방식이 된다.

집을 버리는 삶의 인식은 돌아가는 길마저 잃어버리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가계(家系)는 안식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의 기능을 애초부터 상

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존재해 있지 않는 것이다. 삶의 모태로서 바람으로 흔들리는 집의 의미는 그의 시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은 채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이라는 근원적 안식처가 없는 시인은 ‘거리’를 헤매는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는다.⁷⁾ 길이라는 공간요소와 집이라는 공간요소는 분리되기 보다는 연속되거나 상응하며, 시인의 실존적 의미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집의 기능 상실과 길 떠남의 의식은 그의 기억속의 상실감과 결핍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기형도의 내면은 유년의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한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유년의 기억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유년의 현존을 드러낸다. 즉 유년과의 합일보다 유년시절에 겪은 고통, 결핍, 상실 등의 부정적 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년의 결핍과 상처는 단순한 기억의 고통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나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오래된 서적(書籍)」),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 (「장미빛 인생」), ‘나는 불행하다’ (「진눈깨비」)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조적 현실 인식과 비극적 자아의 의식세계의 근원이 된다. 즉 유년은 가난의 공간이자, 상실의 공간이자, 결핍의 공간으로 길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적자아의 의식세계를 엿보게 한다.

4. 절망적 회귀의 공간

기형도의 작품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은 행복의 원초적 세계와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간의 비극적 단절이 빚어내는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 의식’ 또는 ‘회귀 의식’이라⁸⁾ 했듯이 기형도의 시에 나타나는 비극은, 시인은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갈 길조차 없었다는 데에 있다. 즉

7) 엄경희, 「상자 속에 채집된 아이러니적 존재-기형도론」, 이화현대시 연구회,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p.305.

8) 박철화, 「집 없는 자의 찾기, 혹은 죽음-기형도론」, 《문학과 사회》, 1989, 가을, p.1095.

기형도의 시는 세계의 상실과 이에 따른 회복의 열망 사이의 길 찾기와 그 좌절의 기록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
 마른나무에서 연거푸 물방울이 떨어지고
 나는 천천히 노트를 덮는다
 저녁의 정거장에 검은 구름은 멎는다
 그러나 추억은 황량하다, 군데군데 쓰러져 있던
 개들은 황혼이면 처량한 눈을 껌벅일 것이다
 물방울은 손등 위를 굴러다닌다, 나는 기우뚱
 망각을 본다, 어찌다가 집을 떠나왔던가
 그곳으로 흘러가는 길은 이미 지상에 없으니
 추억이 덜 깬 개들은 내 딱딱한 손을 깨물 것이다
 구름은 나부긴다.
 얼마나 느린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나뭇잎들이 그 좁고 어두운 입구로 들이닥쳤는지
 내 노트는 알지 못한다, 그동안 의심 많은 길들은
 끝없이 갈라졌으니 혀는 흥기처럼 단단하다
 물방울이여,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들어선 안 된다
 주저앉으면 그뿐, 어떤 구름이 비가 되는지 알게 되리
 그렇다면 나는 저녁의 정거장을 마음속에 옮겨놓는다
 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작들에게 나는 쓴다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미는지 머물다 가시라고
 모든 길들이 흘러온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정거장에서의 충고」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희망을 노래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희망보다는 죽음의 냄새가 스며 있으며 또한 황량한 추억을 떠올린다. 즉 정거장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길 떠남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되돌아가는 길을 생각

해 보는 중간적인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시적 자이는 돌아갈 수 없는 자의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황량한 추억'과 '집으로 갈 길이 흘러 가버린' 길 위의 정거장에서 희망의 징후를 말하려 했으나 그것은 실낱같은 희망일 뿐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작'들이 머물다 사라진 늙은 몸이 서성이는 공간일 뿐이다.

이러한 희망의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추억은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두 개의 대립 항들로서 그의 의식은 끊임없이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위험한 경계 지점에서 맴돌았고, 그것이 추억 또는 낯선 기억이라는 형태로 시인의 의식 밖으로 통겨져 나왔다.⁹⁾ 또한 이러한 두개의 대립 항에는 과거속의 고통의 근원이었던 부정적인 아버지와 기다림 가운데서도 연민과 애뜻함으로 남아있는 어머니가 공존한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연민도 결국은 기억 속의 과거의 상처와 결핍을 메우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이중의 기억은 품어볼 수조차 없는 희망에 대한 미련이자 절망의 길로 현재의 내면에 존재한다.

이쁜 달(月)이 노랗게 붉은 저녁,

리어카를 끌고 신작로(新作路)를 걸어오시던 어머니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긴 띠를 발목에 매고, 그날 밤 내내

몸시 허리를 앓았다.

—「달 밤」 일부

비록 달마저도 노랗게 붉은 저녁일지라도 어머니의 집으로의 귀환은 그의 유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자리한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속의 유년일지라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함께한 자리로 존재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부재 상황은 어린 화자가 겪는 일과성의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 핵심에 자리 잡고 그를 부단히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원초적 장면이 된다.

기억 속의 집으로의 퇴행은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긍정적 미래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의식행위 중의 하나이다. 절망적이고

9) 강진호, 「문인의 죽음과 문학의 운명-요절로 문학을 완성한 기형도와 김소진의 문학」, 《문예중앙》, 1997, 가을, p.443.

극극적인 현실 앞에서의 위로와 위안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게 한다.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시적 자아를 더욱 절망에 빠뜨릴 뿐이다.

밤 세시, 길 밖으로 모두 흘러간다 나는 금지된다
장마비 빈 빌딩에 퍼붓는다
물위를 읽을 수 없는 문장들이 지나가고
나는 더 이상 인기척을 내지 않는다
(……)

장마비, 아버지 얼굴 떠내려오신다
유리창에 잠시 붙어 입을 벌린다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우수수 아버지 지워진다, 빗줄기와 몸을 바꾼다
아버지, 비에 묻는다 내 단단한 각오들은 어디로 갔을까?
번들거리는 검은 유리창, 와이셔츠 흰빛은 터진다
미친듯이 소리친다, 빌딩 속은 악몽조차 젓지 못한다
물들은 집을 버렸다! 내 눈 속에는 물들이 살지 않는다

—「물 속의 사막」 일부

나를 끌고 다녔던 몇 개의 길을 나는 영원히 추방한다 내생의 주도권을
제 마음에서 육체로 넘어 갔으니 지금부터 나는 길고도 오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내가 지나치는 거리마다 낯선 기쁨과 전율은 가득 차리니 어떠한
권태도 더 이상 내 혀를 지배하면 안된다

—「그 날」 일부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음 한 자락 어느 곳 걸어두는 법 없이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리, 흘러간다 어느 곳이든 기척 없이

—「신목제(植木祭)」 일부

그의 길들은 멀리서 흘러왔다. 그리고 그를 끌고 다녔던 몇 개의 길을 그는 영원히 추방하고자 한다. 추방하고자 하는 길에는 아버지가 떠오르는 빗속의 길이 있다. 유리창으로 흐르는 아버지의 길이 곧 시적 자아의 길이다. 유년기 아버지의 존재에서 떠나 왔다고 생각했으나 장맛비 퍼붓는 유리창에는 어느새 떠내려간 집과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보인다. 그렇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의 길이 다름 아니라 나의 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때 그의 내면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아버지였다’, ‘나는 헛살았다’라는 인식은 내면 의식에 자리한 추억이 지금의 자신을 감금하는 고통과 같은 의미일 뿐이다. 즉 기형도의 시에 나타나는 시적 자아는 유년의 기억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그는 왜 그렇게 황량한 추억에 연연했는가. 그것은 기형도의 과거의 기억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유년의 체험과 함께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존재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망 없는 미래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함께 품은 자의 절망 때문이다. 즉 그의 의식은 미래에 대한 전망보다 과거에 고착되어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위로나 위안도 되지 못하는 유년의 기억으로의 회귀 역시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기형도는 어디로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에 절망한다.

5. 맺는 말

기형도는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내야 했던 짧았던 삶만큼이나 비극적인 시 세계를 보여준 시인이다. 그의 시집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울한 분위기는 많은 평자들에 의해 내면의 비극성과, 부정적 인식, 죽음의 강렬한 이미지로 그의 시적 특징을 규명하게 하였다. 물론 그의 시에서 희망의 요소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낯설고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한 젊은 시인의 냉정하고 비정한 내면의식을 밝히는데 많은 논의들은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기형도 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주로 그의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기형도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포였고 또한

그런 현실들 속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는 '청춘'이란 그에게 탄식만을 안겨주었다. 부정적 세계인식과 절망으로 가득한 기형도의 내면은 따라서 비극적 상실감에 젖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형도의 비극적 세계관의 기저에는 유년의 가난과 상처와 고통이 존재한다. 유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현실마저도 부정적 세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곧 위안과 추억으로서의 집의 상실은 결국 시적 자아를 둘러싼 근원적 절망과 상처로 남았으며 이 상처는 현실 속에서 그의 모습으로 존속한다.

안개 자욱한 방죽은 현실의 공포와 폭력이 잠재해 있는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과 고립이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한 곳이다. 이런 길의 인식은 결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기형도에게 있어 길은 길거리에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 자아 인식의 공간이며 자아와 세계의 화해지향이 불가능한 닫힌 공간이자 개별화되고 고립된 곳으로 단절을 의미하는 시적 공간이다. 곧 어두운 유년의 상처와 고통을 간직한 자아의 상실의 공간이자 유년의 기억이 지배하는 현실 속의 길은 그를 어디로든 떠나게 하는 자유마저도 구속하고 탄식하게 하는 상처와 결핍의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희망은 현실의 괴로움과 상관없이 가슴 뿌듯하고 벽찬 일일 것이다. 그러나 기형도에게 있어 희망은 생각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며 그럴수록 더욱 절망에 가 닿는 비극의 다른 이름이다. 미래가 없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위로와 위안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게 하였다. 그러나 기형도의 과거로의 회귀는 시적자아를 더욱 절망에 빠트릴 뿐이다. 추억도 기억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정거장에 머물려 희망을 노래하려 하나 현실마저도 미래도 없는 고통일 뿐이었을 때 돌아갈 곳조차 없는 기형도에게 길은 절망적 회귀의 공간이었다.

참고문헌

- 강진호, 「문인의 죽음과 문학의 운명-요절로 문학을 완성한 기형도와 김소진의 문학」, 《문예중앙》, 1997. 가을.
-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 김 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 박철화, 「집 없는 자의 찾기, 혹은 죽음-기형도론」, 《문학과 사회》, 1989. 가을.
- 성민엽, 「부정성의 언어, 그 사회적 의미」, 《오늘의 시》, 1989.
- 성석제, 「기형도, 삶의 공간과 추억에 대한 경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기형도 추모논집』, 솔, 1994.
- 엄경희, 「상자 속에 채집된 아이러니적 존재-기형도론」, 이화현대시 연구회,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 임태우, 「죽음을 마주보는 자의 언어-기형도론」, 《작가세계》, 1991. 9.
- 정효구, 「기형도론 :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2. 2.
- 최창현, 「한국 현대시 존재탐구의 변모양상-김춘수, 박남수, 김종삼, 기형도, 최승호, 황지우, 유하, 함성호, 김언희 시의 탐구대상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중앙어문학회, 2003. 12.